

동방신기 日 소속사 "활동 전폭지원, 애정갖고 지켜봐 달라" 홈페이지 공개

입력 2009. 8. 7. 07:56 · 수정 2009. 8. 7. 07:56



아이돌 스타 동방신기가 최근 소속사 SM과의 분쟁 속 일본 활동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동방신기의 일본 소속사 에이벡스는 6일 오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에 있어 동방신기의 활동을 전폭 지원할 것이다. 앞으로도 동방신기를 따뜻하게 지켜봐 달라"고 공지했다.

에이벡스 측은 또 "양측에게 동방신기 해체를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받았다"며 "이는 SM엔터테인먼트와 3명의 멤버들이 앞으로 예정된 일본 활동을 실시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밝혔다.

일본 소속사 에이벡스가 동방신기의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공식 천명함에 따라 최근 '동방신기 사태'는 또 다른 분수령을 맞게 됐다.

동방신기 멤버 시아준수 영웅재중 믹키유천은 최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이들은 "이번 가처분 신청이 동방신기의 해체를 전제로 하지 않는

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동방신기는 일본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한편 동방신기는 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진구외원 불꽃놀이 축제' 참석차 김포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동방신기는 '진구외원 불꽃놀이 축제' 참석 외에 8일 에히메, 22일~23일 도쿄, 29일~30일 오사카 등지에서 일본 콘서트를 펼칠 예정이다. 또 8월16일엔 서울 올림픽주경기장에서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과 함께 'SM타운 콘서트'를 펼친다.

[뉴스엔 엔터테인먼트부]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손에 잡히는 뉴스, 눈에 보이는 뉴스(www.newsen.com)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